

물류운송 큰 차질 없지만 긴장 속 예의주시

화물연대 파업 광양항 르포

노조측, 오가는 트레일러 멈춰 세우고 파업 동참 독려 비상체제 항만공사 “67일간 컨테이너 처리 문제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10일 오후 1시 30분께 여수광양항만공사 4층 회의실에 선 항만공사 직원 10여 명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진행 하고 있었다.

이 회의실 화이트 보드에 전날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물동량, 장치를 등이 적혀 있었다. 여수광양항 정지율(컨테이너를 쌓아놓은 비율)엔 ‘67일’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었다. 화물연대 측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67일간 버틸 수 있는 기간이다.

컨테이너 처리에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여수광양항의 올해 기준 하루 평균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5000~6000 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올해 목표 물동량 처리량은 250만 TEU다.

이날 현재 여수광양항에 등록된 하루 평균 운행 가능 트레일러 수는 모두 741대다. 여수광양항 내 한진해운 광양터미널·한국국제터미널·CJ대한통운 등 3개 부두 운영자들이 터미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적장 장치물에 여유가 많은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여수광양항 운영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여수광양항 측의 설명이다. 평소처럼 모든 시설이 정상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파업 장기화와 노조원 동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에 협조를 받아 1개 중대를 주변 시설에 배치한 상태다.

특히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지난 9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앞 한국국제터미널 주변 도로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지부 노조원들이 광양항으로 향하는 트레일러를 멈춰 세운 뒤 파업 동참을 독려했고 있었다.

경찰이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운송 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노조원들은 이를 의식한 듯 파업 동참을 독려하면서도 강제하진 않았다. 이날 ‘파업 참가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노조원은 “노조원 90% 이상 파업에 참가했다. 평소 같으면 3사 터미널이 트레일러로 북적일텐데, 오늘은 한산하지 않느냐”라며 “시간이 갈수록 파업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남지부 노조원 대다수는 이날 부산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했지만 일부는 여수광양항 주변에 천막을 설치한 뒤 여수 광양항을 오가는 트레일러 운전자 등을

상대로 파업 동참을 독려하며 파업을 계속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파업에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 1100여명, 전남지부 조합원 1500여명중 90%인 2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전남 주요 사업장의 물류 운송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노조원 10%가 운송거부에 참여하자 대체 차량을 투입했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화물연대 소속 81대 가운데 20여 대만 참여해 수송 차질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첫날인 10일 광양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이날 물류수송에 큰 차질 없이 평소처럼 정상운영했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조원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물류대란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금가격 폭락에 염업조합원 내일 집회

정부의 비축염 방출, 생산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소금가격이 폭락하면서 천일염 생산 어가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남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의 90%에 달한다.

10일 대한염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0kg 1포대에 1만604원인 천일염 산지가격은 지난 2013년 6829원, 2014년 5926원, 지난해 4766원, 올해 3200원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지난 2~6월에는 정부가 2013~2015년 수매한 정부비축 천일염 1만 496t 전량을 시세보다 17~18% 저렴한 가격에 방출하면서 천일염 가격이 급락했다.

반면 생산량은 지난 2012년 30만8000t에서 지난해 331만t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시설개선사업의 영향 때문이다. 천일염 생산 어가들은 가격 하락으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자 올해 계획된 생산종료시기(10월15일)보다 한 달 빠른 지난 9월13일부터 생산중단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한염업조합 조합원 400여명은 오는 12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소금가격 안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염업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천일염 전량을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방출하면서 소금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며 “현재는 3200원(20kg 기준)에도 유통되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법무부 공무원 음주운전...차량 2대 고의 추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10일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등기소 김모(51) 소장을 음주 상태에서 차량으로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특수폭행 등)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 전망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은 A씨 등 2명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2%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무등산 제4수원지 인근 청풍습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대 중·중반의 A씨 일행 7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산수동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A씨 일행이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차량을 앞뒤로 막아서자 달아나기 위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청풍습지에서 지인과 술을 나눠마시고 차량에서 보관하고 있던 폭죽으로 불꽃놀이하는 과정에서 A씨 일행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제주 여미지식물원 노조, 광주 원정집회 외 “2005년 인수 후 과도한 구조조정 114명이던 직원 35명으로 급감”

부국철강 “부당하고 없었다”

동양 최대 규모의 온실을 자랑하는 제주 여미지식물원의 노조원들이 10일 광주에서 원정집회를 열었다. 지난 2005년 식물원을 인수한 광주 소재 부국철강의 직원 부당하고 등 노조탄압과 인권침해 실태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부국철강 측은 “경영악화로 일부 사업을 정리했지만 부당하고와 노조탄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여미지식물원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등은 10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부국철강 앞에서 ‘여미지식물원 노조탄압 규탄 광주지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부국철강이 식물원을 인수하고 희망퇴직과 노동조합 간부 징계, 영업부 일방적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강행했다”며 “식물원 인수 당시 114명이던 직원을 35명으로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 간부 등 15명만을 정리해고했다”며 “법원의 복직 판결에 따라 복직한 직원들을 부당한 이유로 중징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여미지식물원 노조 김연자 분회장은 “한 명의 노동자에게 3차례의 해고가 자행되기도 했다”며 “다불어민주당 을지

로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1일 오전 부국철강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열고, 같은 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국철강은 경영 악화로 일부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대량해고나 노조탄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미지식물원의 누적직원은 약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국철강 관계자는 “제주도에 관광지가 늘어나고 경쟁업체가 많아지면서 해마다 쌓이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국과 기념품 판매점, 식당 등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수 당시 연간 100만명에 달하던 관광객도 최근에는 절반 이하인 40만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감축은 11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자진 퇴사, 정년 퇴직, 명예 퇴직자들이 80여명에 달해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미지식물원은 1989년 개원 당시 삼풍그룹 소유였다. 하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유족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식물원을 서울시에게 기부했다. 부국철강은 지난 2005년 식물원을 550억원에 인수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미지’는 한자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전거 출근 70대, 택시·버스에 잇따라 치여 숨겨

뺨소니 기사 2명 검거

이른 새벽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오른 70대 경비원을 잇따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택시기사와 미니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인근 CCTV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범퍼 조각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을 특정, 이들을 검거했다. 이날 오전 검거 당시 택시기사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수치인 0.032%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운동 방해된다”며 차량 50여대 타이어 펑크 낸 60대



○새벽운동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며 주차된 차량 50여대의 타이어를 펑크 낸 60대가 경찰 신세. ○순천경찰에 따르면 최모(67)씨는 지난 4월3일 새벽 5시30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타이어 옆면을 송곳으로 찔러 펑크내는 등 6개월 동안 50여대의 차량을 파손,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구속. ○조사 결과 최씨는 새벽운동을 다니는 길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준비한 송곳과 동전으로 파손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 옆면이 파손되면 재사용이 어려운 뿐 아니라 모르고 고속주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토 500평, 건 904평

1층 (상가) 120평
2층~7층 (오피스) 56개
8층 (41평) 스카이라운지

(연구실, 본사건물, 경영컨설팅 사무실 최적함)
최고급 시설 / 주차 완비 (60대)
※ 분할 등기 가능 ※

※ 보증금 2억 월수익 3,000만 ※

▶ 매가 38억 (용 25억 가능)

평택 토지 전문

▶ 120만평 (평택 신도시 530만평) (현대지구 70만평) (미군기지이전) (KTX 개통) (평택 항)

(미군기지 - 5만평) (평택항) (현대지구 70만평)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 평택 투자 절되 후회 없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순탄 소반사거리 1분 !!
토지 - 1,611평
토목 공사완료 (허가완료)
최고의 입지 조건
※ (총 7필지 분할가능)
1필지 200평 3억
- 1억 투자시 가능 (용 2억)

◆ 경기도 화성시
정남 IC 5분 !!
평 수 - 1,770평
현재 허가중
(현재 공장부지 최고의 도시)

※ 개발시 순수익 10억
10억투자 10억 순수익
▶ 매가 10억 (평당 56만)

※ 토지 2억 ~ 30억까지 다량 확보 ※

경기도 화성시 A.P.T 투자 가장저렴하게 드립니다
※ 심투자 1천 만원
A.P.T 34평 ▶ 매가 2억 4천만원 (용 2억 보3천 월 70만)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을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

● 토 151평, 건 43평
● 영광 터미널 5분 (농가주택 최적합!!)

▶ 매가 8천 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물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3천 5백만(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매가 7천 500만

■ 전남 영광 광명동 상아 아파트
→ 15층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 보증금 600만 월 60만
■ 매가 1억 6천 (용 5천)

062-527-7600 010-6834-4800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 경매 물건 추천 ★

①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 221평, 건 121평
인동사거리 코너 위치
▶ 감정가 14억 → 최저가 14억

② 서구 화정동 (6층 상가 빌딩)
토 799평, 건 2,567평
광천터미널 앞, 6차선 도로 접
위치 최고, 투자 최고
▶ 감정가 138억 → 최저가 49억

③ 전남 장성 북하면 (식당건물)
토 280평, 건 253평
백암산 관광지 인근, 식당밀집지역
▶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4억9천

경매교육

■ 기본이론들으면서 실천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오픈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천 교육 ☆
바로 실천으로 수익창출 하실뿐!!
특수물건, 유지권, 가정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직원 구함

부동산 경매 관심있으신분
공인중개사 환영
실천 경험자 우대, 환영